

국내 기업 경영진들의 2026년 기업 전략 및 AI 활용 현황

Executive Summary

About the Survey

EY한영은 2026년 경제 환경과 기업 전략, 그리고 AI 활용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기업 경영진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경영진 중 242명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는 총 18개 산업 부문에 걸쳐 있으며, 소속 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으로는 2조 원 이상 기업이 28%,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이 23%, 5,000억 원 미만 기업이 49%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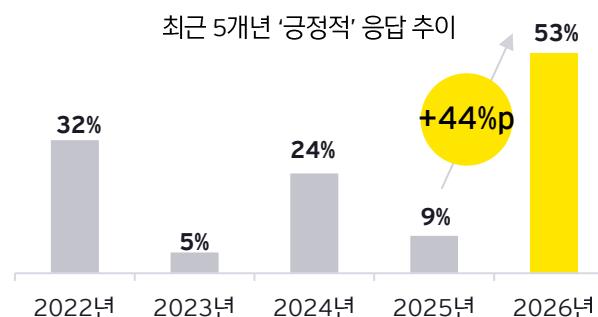
Key Findings

국내 기업 경영진의 53%가 2026년 국내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EY한영이 최근 5년간 진행한 조사 중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높습니다.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p 상승한 수치입니다.

Q 2026년 국내 경제 성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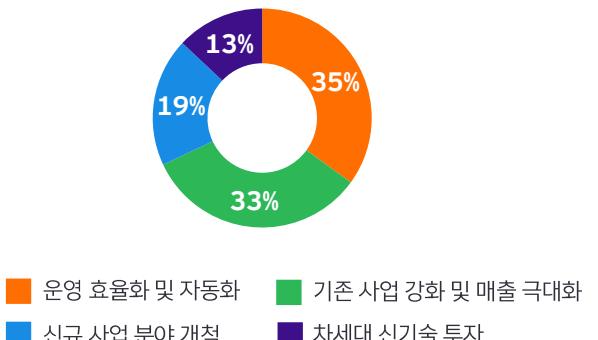


Q 귀사의 2026년 경영 실적은 2025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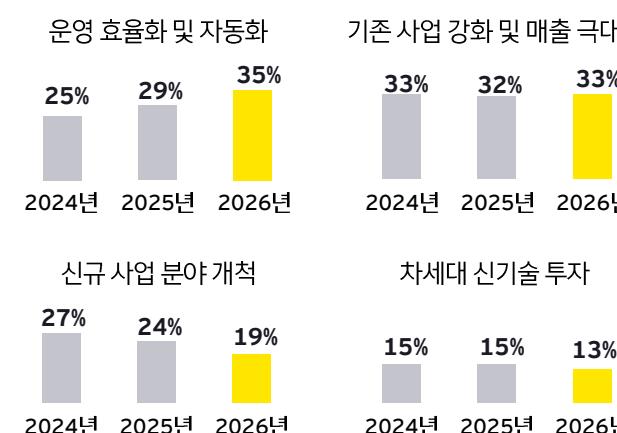


경기 인식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외부 환경을 고려해 기업들의 전략 방향은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에 집중한 '내실 강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에 대한 응답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신규 사업 분야 개척' 응답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Q 향후 2년간 기업 혁신을 위해 어느 분야에 가장 집중할 예정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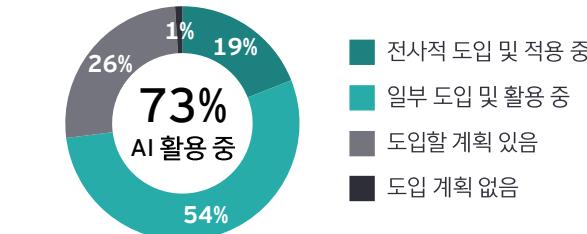
최근 3개년 응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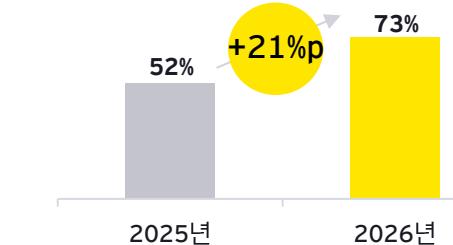
AI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사 또는 일부 영역에 AI를 도입한 기업 비중이 73%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습니다.

Q 귀사의 AI 도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AI 도입 현황



최근 2개년 AI '전사적' 또는 '일부 활용 중'이라는 응답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 체감한 효과는 내부 운영 영역에 집중됐습니다. 고객 경험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또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대한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Q AI 도입은 귀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허용(최대 3개)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및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세미나보도자료] [EY한영 “NAVI의 시대”, AI로 기업 경쟁력 재설계해야”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 [세미나아티클] [NAVI의 시대 도래: 기업 비즈니스 임팩트 및 AI 활용 전략](#)
- [설문조사보도자료] [EY한영 설문조사, 국내 경영진 53% “올해 경기 긍정”... 최근 5년 ‘긍정’ 응답 최고치](#)
- [설문조사아티클] [예측이 어려운 전환의 시대에 AI로 기업을 재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is not a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299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